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광주 - 동광평IC 구간 광역 통행료 환불
우천시 9홀 이후 홀별요금정산제 실시
예약 : www.hpdynasty.co.kr 061) 320-7700

10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열린 '제15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2일째 강릉고-부천고 경기. 8회말 부천고 공격 1사 2, 3루에서 강릉고 투수 강하늘의 폭투 때 3루 주자 김진웅이 홈으로 쇄도, 세이프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대구 상원 윤성민 대회 첫 완봉승

〈옛 대구상고〉

제15회 무등기 고교야구

대회 2일째

'막강' 덕수 상대 9이닝 7K·4피안타 호투

진흥, 작년 챔프 장충 꺾고 부천과 16강행

10일 광주 무등경기장야구장에서 벌어진 제 15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 대회 둘째 날 경기에서 '전통의 강호' 대구 상원고가 1·2학년 위주로 라인업을 구성한 '힘 빠진' 우승후보 덕수고를 완봉승으로 누르고 16강에 진출했다.

부천고는 강릉고에 역전승을 거두었고, 진흥고는 지난해 우승팀 장충고를 제압했다.

상원고 3-0 덕수고

대구 상원고는 10일 광주 무등경기장에서 열린 덕수고와의 대회 1회전에서 선발 윤성민의 완투에 힘입어 3-0으로 완봉승을 거두었다.

상원고는 경기 시작과 동시에 연속 볼넷으로 얻은 무사 1·2루 기회에서 상대 투수 박찬구의 폭투로 선취점을 뽑았다. 덕수고 선발 박찬구는 또다시 볼넷을 내주면서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한 채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이후 5번 김정수의 적시타로 1점을 보탠 상원고는 2-0으로 기선을 잡았다.

상원고는 이날 3개의 안타와 5개의 사사구로 3점을 뽑으며 손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 마운드에서는 '에이스' 윤성민의 활약이 돋보였다.

선발 윤성민은 9이닝 동안 4피안타 7탈삼진으로 대회 첫 완봉승을 장식했다. 윤성민의 안정된 피칭과 양팀 타선의 무기력한 공격이 계속되면서 경기는 1시간 49분 만에 상원고의 승리로 끝났다.

강릉고 2-6 부천고

'야구 중흥'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부천고는 장영석의 2타점 3루타를 발판으로 강릉고에 6-2 역전승했다.

부천고는 1회말 몸에 맞는 볼과 안타로 만든 1사 1·2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강릉고의 반격을 맞았다. 2회초 부천고의 선발 배제훈은 2사 1·3루에서 지명타자 김영국에게 우익수 키를 넘기는 싹쓸이 3루타를 허용하면서 2점을 먼저 내줬다.

0-2로 뒤지던 3회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회심의 3루타가 터졌다. 1사 1·2루에서 부천고 장영석이 우중간을 가르는 3루타로 주자를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2-2로 균형을 맞추었고, 김승문의 희생플라이로 1점을 더해 경기는 3-2로 뒤집어졌다.

부천고는 8회말 1사 2·3루에서 강하늘의 폭투로 1점을 추가하는 등 3점을 더 달아나며 6-2로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부천고 선발 박인규는 6이닝 동안 5피안타 2탈삼진으로 2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진흥고 2-0 장충고

진흥고가 장충고의 대회 2연패를 저지했다.

1회초 진흥고는 3번 타자 박상현의 3루타와 4번 김도현의 볼넷을 묶어 2사 1·3루를 만들었다. 위기 상황에서 장충고 강송훈의 폭투가 나오면서 3루 주자 박상현이 홈을 밟아 진흥고는 1-0으로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이후 양팀은 추가 득점 없이 8회까지 경기를 이어갔지만, 강팀들의 승부답게 박진감 넘치는 마운드 대결이 펼쳐졌다.

1점차의 리드를 지키던 진흥고는 9회 상대의 실책으로 또다시 행운의 1점을 만들며 승리를 굳혔다.

진흥고는 선두타자 김도현의 볼넷에 이어 희생번트와 몸에 맞는 볼로 1사 1·2루를 만들었다. 원강산의 병살타성 타구가 나오면서 공격이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2루수 윤영삼의 악송구로 1루수 뒤로 공이 빠지면서 김도현이 홈을 밟아 2-0이 됐다.

지난해 무등기 우승팀 장충고는 진흥고 마운드의 위력에 눌려 3개의 안타를 뽑는데 만족하며 1회전에서 탈락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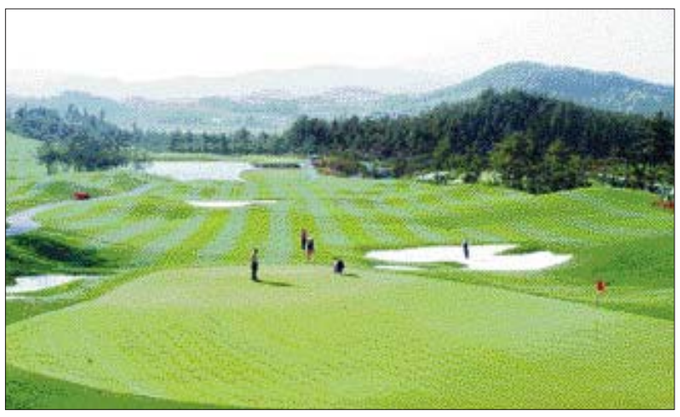
■ 오늘의 무등기 야구

16강
휘문고-유신고(10시)
동산고-세광고(12시30분)
마산고-공주고(오후 3시)
부경고-동성고(오후 5시30분)

■ 내일의 무등기 야구

16강
상원고-청원고(10시)
부천고-화순고(12시30분)
진흥고-광주일고(오후 3시)
부산공고-서울고(오후 5시30분)

새롭게 태어난 함평다이너스티CC



4계절 양잔디 골프장인 함평다이너스CC가 기존 18홀에서 9홀을 증설하고, 광주~무안고속도로 완전 개통으로 광주에서 30분에 닿을 수 있는 등 높아진 접근성으로 골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9홀 늘려 27홀로 탈바꿈

홀인원 쉬운 깔때기홀도

광주서 30분이면 도착

4계절 양잔디 골프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함평다이너스티CC가 흥미와 뛰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9홀을 증설하고, 광주~무안고속도로 완전개통으로 광주에서 30분대에 닿을 수 있는 등 접근성까지 높아져 새롭게 태어난다.

함평다이너스티CC는 기존의 18홀(파72·전장 6,430m)에서 9홀 증설 공사를 통해 27홀(파 108·전장 9,570m)로 탈바꿈하게 된다. 호남 최초로 양잔디를 식재해 사계절 푸른 잔디에서 라운드를 즐길 수 있었던 함평다이너스티CC는 증설중인 9홀에도 페어웨이에 부드럽고 질감이 좋아 카펫을 밟는 기분이 나는 켄터키 블루그라스, 그린에도 역시 질감이 뛰어난 벤트그라스를 심어 라운딩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

현재 공정률 85%로 오는 10월 오픈 예정인 함평다이너스티CC 신규 9홀은 기존 코스 설계자인 로널드 프림(Ronald Fream)이 맡아 최대한 자연친화적으로 셋업됐다.

새로 조성된 19번홀~27번홀까지 각 홀은 홀 마다 각기 다른 특징으로 설계돼 골퍼들에게 도전의식과 재미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21번홀(파5·510m)은 넓고 긴 파5코스로 그린 주변에 억새 군락지를 조성해 '가을의 홀'로 불릴 만 하고 22번홀 티박스까지 유럽 참나무 숲이 조성돼 홀을 이동하면서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게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또한, 23번홀(파3·165m)과 27번홀(파4·330m)은 각각 '홀인원 홀'과 '이글 홀'로 골퍼들의 꿈인 홀인원과 이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됐다.

23번홀과 27번홀은 각각 그린 한쪽에 깔때기를 만들어 깔때기쪽으로 온 그린할 경우 자연스럽게 홀인원과 이글이 가능토록 한 것. 이외에 새로 조성된 9홀은 적당한 업 다운과 난이도를 줘 골프의 재미를 흠뻑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함평다이너스티CC는 그동안 '옥에 티'로 지적됐던 광주에서 1시간 이동거리가 지난달 28일 광주~무안고속도로 완전개통으로 3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함평다이너스티CC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출발, 광주~목포 국도를 이용할 경우 1시간이 소요됐으나 완전히 뚫린 광주~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면 30분 내에 도착이 가능하다.

더불어 함평다이너스티CC 내장객들은 동광산 톨게이트에서 고속도로 통행권을 받아 동함평 IC에서 톨게이트 비용을 계산한 후 영수증을 함평다이너스티CC 프런트에 제시하면 왕복 통행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함평다이너스티CC는 호남의 어느 골프장보다 다양하고 파격적인 회원 특전을 부여해 회원권의 소장 가치를 높였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알 림

패기의 격돌… 白球의 향연

제15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 열전 거듭

13일부터 8강전, 16일 결승전 무등경기장 야구장

광주일보사와 대한야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제 15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가 연일 박진감 넘치는 명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남 유일의 전국 고교야구대회인 무등기야구에는 전국 각 시·도 대표 22개팀이 출전해 고교야구 정상을 놓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13일부터는 8강전이 펼쳐지며 준결승은 15일 오후 1시부터, 대망의 결승전은 16일 오후 6시에 열립니다. **준결승과 결승전은 케이블채널 X-ports로 중계되며 경기장 입장은 무료입니다.**

고교야구의 진수를 보여주는 패기와 열정의 그라운드에 야구팬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주 최 : 광주일보사 · 대한야구협회
주 관 : 광주광역시야구협회
협 찬 : 기아타이거즈프로야구단 · 동양지휘손행 · 동신대학교
의료지원 : 동아병원 · 광주미래병원

무등기 스타

"맞춰 잡는다는 생각으로 던진 게 주효"

대구 상원 에이스 윤성민

"동료들의 도움으로 대회 첫 완봉승이자 저의 전국대회 첫 완봉승을 기록하게 돼서 기쁩니다."

대구 상원고(옛 대구상고)의 '에이스' 윤성민(18·3년)이 10일 덕수고와의 1차전에서 선발로 나와 9이닝동안 4피안타 7탈삼진으로 3-0 완봉승을 거두며 팀의 16강을 이끌었다.

윤성민은 우승 후보 덕수고를 맞아 1, 6회를 제외한 7이닝을 삼자범퇴로 막으며 1시간 49분만에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4회 4번타자 유영현을 시작으로 3타자를 연속해서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윤성민은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가미한 변화구 위주로 승부를 펼쳐 7개의 삼진을 기록했다.

"맞춰 잡는다는 생각으로 투구를 했는데 슬라이더가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5회를 2개의 삼진을 포함해 삼자범퇴로 막은 후 편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대구 본리초 3학년 때부터 야구를 시작한 윤성민은 190㎝의 큰 키에 90㎏ 몸무게로 신체 조건이 좋지만 직구 스피드가 130㎞ 중반에 머무르면서 변화구 중심으로 피칭을 하는 기교파다.

윤성민은 "내야수 들이 안정된 수비로 어깨를 가볍게 해주었기 때문에 완봉승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며 "컨디션도 최상이고 강력한 첫 상대를 맞아 좋은 결과를 거둔 만큼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

위성미 모처럼 '나이스 샷'

US여자오픈 출전권 획득

독일여자오픈에서 모처럼 명성에 걸맞은 샷을 보였던 위성미(19·미국 이름 미셸 위)가 US여자오픈 출전권을 따내고 다시 한번 활짝 웃었다.

위성미는 10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록빌의 우드몬트골프장과 마너골프장에서 잇따라 치른 US여자오픈 예선전 36홀 경기에서 137타를 쳐 오는 23일 개막하는 본선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2004년부터 작년까지 4년 연속 US여자오픈에서 출전했던 위성미가 예선을 거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2006년 대회에서 공동3위를 차지하기도 했던 위성미는 작년에는 1라운드에 83타를 친 뒤 2라운드 도중 기권했다.

올해 LPGA 투어 대회에 두번 나와 한 차례 컷오프와 사실상 꼴찌에 그쳤던 위성미는 최근 독일에서 열린 유럽여자프로골프투어 대회에서 공동9위에 오르면서 슬럼프 탈출을 예고했다.

PGA US오픈 골프장

우즈·미켈슨에 유리

12일 막을 올릴 제108회 US오픈골프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는 156명이지만 온통 관심은 단 두 명에게 쏠려 있다.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인 세계랭킹 1위 타이거 우즈(미국)와 세계 2위 필 미켈슨(미국)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인근 라호야의 토리파인스골프장 남코스(파71·7천643야드)를 서로 '안방'처럼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토리파인스 남코스(이하 토리사우스)는 뉴욕주립공원 블랙코스에 이어 US오픈을 유치한 영광을 안은 두번째 퍼블릭 코스.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자란 우즈와 미켈슨은 청소년시절부터 퍼블릭 코스인 토리사우스를 뛰어 놀았다.

이제는 US오픈 단골 출전 선수가 된 최경주(38·나이키골프)는 그러나 전망이 밝지 않다. US오픈에 7차례 출전해 4차례나 컷오프됐고 한번도 '톱10' 입상이 없었던 최경주는 토리사우스에서 성적도 신통치 않아 고민이다.